

북한 문제의 새로운 해법 ■■■

안과 밖이 함께 변화하는 공진전략

햇볕과 제재의 이분법에서 벗어나라.

북한, 남한, 주변국들이 함께 변화하는 “공진전략”으로
바람직한 북한과 한반도의 미래상을 제시한다.



북한 2032 : 선진화로 가는 공진전략

편저자_하영선 · 조동호

출판사_동아시아연구원

발행일_2010년 11월 3일 1쇄

판형_신국판

쪽수_236쪽

가격_15,000원

ISBN_978-89-92395-11-3 93340

문의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4가 310-68번지 삼풍빌딩 909호

재단법인 동아시아연구원

출판팀 신영환 T.02-2277-1683 (내선 112), F.02-2277-1684

“북한 선진화?”

최근의 당 대표자회의에서 북한은 김정일의 3남 김정은을 중심으로 한 후계체계 구축을 공식화하였다. 그리고 이제 김정은은 김정일에 이어 북한 정치의 명실상부한 2인자로 부상하고 있다. 유례없는 3대 세습이라 평가하지만, 내적으로는 수령에 의한 독재와 선군정치가 지속되고 외적으로는 국제사회의 문제아로 고립과 절명의 위기에 봉착해 있는 북한으로서는 어쩌면 당연한 귀결이었을지도 모른다.

세계는 이미 21세기의 글로벌 시대가 새롭지 않지만 북한은 여전히 19세기에 머물러 있다. 과연 이런 상태로 얼마나 버틸 수 있을까? 3대 세습으로 버틴다고 살아남을 수 있을까? 21세기 여전히 분단 조국을 안고 살아가는 우리에게 북한의 미래는 결국 우리 자신의 미래일 수밖에 없다. 따라서 퇴행적 행보의 북한을 두고만 볼 수 없기에 우리는 진지하게 미래 북한의 발전전략에 대해 고민해야 한다. 북한을 오늘의 21세기로 불러 내어 발전시키고 선진화시키는 것도 결국 우리의 몫이다.

“왜 2032년인가?”

2012년은 북한 지도부가 공식적으로 강성대국의 대문을 열겠다고 천명한 해이다. 그러나 현실은 어둡다. 핵선군주의의 과잉 안보는 역설적으로 안보불안을 가중시켰고 과잉 안보를 위한 과잉 지출로 세계 최빈국의 비극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비극을 전환시킬만한 북한 지도부의 결단 또한 기대하기 힘든 것이 현실이다. 그럼에도 북한은 2012년에 가서 강성대국 건설을 완성했다고 선언할 것이다.

누구도 믿지 않을 선언은 차치하고, 정작 가능한 시점을 보아야 한다. 그리하여 우리는 북한을 변화시킬 어떤 힘이 있고 그것이 긍정적으로 작용한다면 선진화된 북한을 기대해볼 수 있는 가장 가까운 시점은 그로부터 20년쯤은 흘러야 할 것이라 판단하였다. 2032년은 북한 선진화의 현실적 목표 시점이다.

“공진전략, 안과 밖이 함께 변화해야 한다.”

“햇볕이나 제재냐?”의 논쟁은 북한을 변화시키지도 한반도의 긴장을 완화시키지도 못했다. 본격적으로 북방외교의 물꼬를 튼 지도 20년이 흘렀지만 한반도의 대립과 갈등은 해소되지 않고 있다. 과거의 회고적이고 비판적인 북한 연구의 담론에서 탈피하여 보다 건설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접근이 절실했다. 이에 EAI 북한연구센터는 2008년 3월 “북한 선진화 연구패널”을 결성하고 본격적으로 북한에 대한 미래 발전전략을 모색하게 되었다.

이에 대한 해법으로 “공진전략”(Coevolutionary Strategy)을 키워드로 제시한다. 북한이 생존의 문제를 해결하고 한반도의 위기를 넘어 평화를 공고히 하기 위해서는, 일방의 이니셔티브가 아니라 북한과 함께 남한 및 주변세력들이 동시에 변화하는 “공동진화”(coevolution)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북한 2032 : 선진화로 가는 공진전략》

이 책은 EAI의 “북한 선진화 연구”의 결과물로, “공진전략”이라는 키워드를 중심으로 정치, 외교, 군사, 경제, 인권 분야를 망라하고 있다.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북한의 발전전략에 대한 최초의 종합적 시도를 이루어내었다. 이 책을 계기로 남북한 문제의 발전적 대안 마련을 위한 새로운 접근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

□ 목 차

1장 2032 북한선진화의 길_복합그물망국가 건설 | 하영선

북한 공진전략 연구

2장 정치 | 우승지

3장 외교 | 전재성

4장 군사 | 황지환

5장 경제 | 조동호

6장 인권 | 김수암

부록



□ 필자 약 력

김수암 통일연구원 연구위원. 서울대학교에서 정치학 박사학위를 받고 민주평통 상임위원, 외교통상부 정책자문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주요 연구 분야는 북한인권, 대북지원, 남북 간 인도주의 사안 등이다. 이와 관련하여 다수의 논문과 연구보고서를 출판했으며, 최근 논문으로는 “대북지원과 국민적 합의”, “유엔 인권레짐과 북한인권: ‘전략’과 ‘관계’를 중심으로”, “헬싱키 최종의정서의 의의와 특징 : 인권 의제를 중심으로” 등이 있다.

우승지 경희대학교 국제학부 교수. 미국 인디애나 대학교(블루밍턴)에서 정치학 박사학위를 받았고, 서울대학교 국제문제연구소 책임연구원, 외교안보연구원 조교수를 역임했다. 주요 연구분야는 북한정치, 남북관계, 국제정치이며, 주요 논문으로는 “The Park Chung-hee Administration amid Inter-Korean Reconciliation in the Détente Period: Changes in the Threat Perception, Regime Characteristics, and the Distribution of Power”(*Korea Journal*, Summer 2009), “진화기대이론과 데탕트 시기 남북화해의 이해” (〈국제정치논총〉, 2008), “김정일 시대 북한의 국제관계론 이해를 위한 시론” (〈국제정치논총〉, 2007), “South Korea’s Search for a Unification Strategy”(*Orbis*, Summer 2003) 등이 있다.

전재성 서울대학교 외교학과 교수. 전재성 교수는 서울대학교 외교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노스웨스턴대학교(Northwestern University)에서 정치학 박사학위를 받은 후, 숙명여자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조교수를 역임하였다. 최근 저술로는 “프랑스 드골 대통령의 자주외교 연구” (〈한국정치외교사논총〉, 2008), “강대국의 부상과 대응 메커니즘 : 이론적 분석과 유럽의 사례” (〈국방연구〉, 2008), “유럽의 국제정치적 근대 출현에 관한 이론적 연구” (〈국제정치논총〉, 2009), “구성주의 국제정치이론에 대한 탈근대론과 현실주의의 비판 고찰” (〈국제정치논총〉, 2010) 등이 있다.

조동호 이화여자대학교 사회과학대학 북한학 협동과정 교수. 미국 펜실베이니아 대학교에서 경제학 박사학위를 취득하였고, 한국개발연구원(Korea Development Institute: KDI)에서 선임연구위원, 북한경제연구팀장, 기획조정실장을 역임하였다. 현재 대통령실 외교안보수석실 자문위원, 국회 예산정책처 자문위원,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통일부 정책자문위원 등을 맡고 있으며, 동아시아연구원 북한연구센터 소장, 중앙일보 ‘중앙시평’ 칼럼니스트 등으로도 활동하고 있다. 주요 연구 분야는 북한경제와 남북경협이며, 주요 논문으로는 “통일비용 논의의 바람직한 접근” (제주평화연구원, 2010), “북한경제 중국 예측론의 비판적 고찰” (〈국제지역연구〉, 2008), “북한의 국제금융기구 가입 : 가입조건 및 혜택, 그리고 북한의 선택” (〈통일문제연구〉, 2008), “절망의10년, 기교의10년 : 남북경협 20년의 평가” (〈담론201〉, 2008) 등이 있다.

하영선 서울대학교 외교학과 교수. 프린스턴대학교 국제문제연구소 초청연구위원,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 초청연구위원, 서울대학교 사회과학대학 국제문제연구소 소장, 조선일보의 객원 논설위원, 한국평화학회 회장을 역임하였다. 하영선 교수는 서울대학교 외교학과를 졸업하고 동 대학에서 정치학 석사학위를 취득하였으며, 워싱턴대학교에서 국제정치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현재 동아시아연구원 지구넷21 회장을 맡고 있다. 최근 편저서로는 《국제화와 세계화 : 한국, 중국, 일본 사이버 공간의 세계정치》 (서울: 집문당, 2000), 《21세기 평화학》 (서울: 풀빛, 2002), 《21세기 한반도 백년대계 : 부강국가를 넘어서 지식국가로》 (서울: 풀빛, 2004), 《변화하는 세계 바로 보기》 (파주: 나남, 2004), 《21세기 한국외교 대전략》 (서울: 동아시아연구원, 2006), 《북핵위기와 한반도 평화》 (서울: 동아시아연구원, 2006) 《동아시아공동체》 (서울: 동아시아연구원, 2008) 등이 있다.

황지환 명지대학교 북한학과 교수. 미국 콜로라도주립대학에서 정치학 박사학위를 취득하였으며 서울대학교 통일연구소 선임연구원을 역임하였다. 황교수는 북한 핵문제를 비롯하여 동북아국제관계 및 안보문제에 관한 다양한 논문을 발표하였다. 최근 논문으로는 “International Relations Theory and the North Korean Nuclear Crisis,” “Offensive Realism, Weaker States, and Windows of Opportunity: The Soviet Union and North Korea in Comparative Perspective,” “The Second Nuclear Crisis and U.S. Foreign Policy,” “Rethinking the East Asian Balance of Power,” “전망이론을 통해 본 북한의 핵정책” 등이 있다.

동아시아연구원(The East Asia Institute: EAI, 원장 이숙종 성균관대 교수)은 2002년 5월 설립된 독립 연구기관입니다. EAI는 동아시아 국가들이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그리고 개방된 사회를 발전시킴으로써 평화로운 국제 사회 형성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연구를 통한 정책 제안을 위해 설립되었습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하여, EAI는 다양성, 관용, 책임감, 투명성을 담보하는 자유주의 가치를 실천하고 확산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EAI는 설립 이래 건전한 지식을 생산하고 확산시키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국내외 학자들과 현직에 종사하고 있는 여러 전문가들의 산재한 지식들이 EAI를 통해서 세상과 소통하고 변화의 힘을 발휘할 수 있도록, 지식의 그물망을 짜고 변화의 추진차로서의 역할을 지속해오고 있습니다. 지식의 자양분으로 싹을 틔우고 세상이 그것을 수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EAI의 변함없는 목적이자 역할입니다.

EAI는 독립 싱크탱크로서 국내외 핵심 이슈에 대한 연구와 정책개발을 중심으로 국제회의와 포럼, 교육, 출판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한 아이디어 확산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EAI의 연구활동은 외교안보 프로그램과 거버넌스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5개 연구센터에서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중요한 국가적 현안 및 사회이슈에 대해서는 태스크포스(task force)팀을 구성하여 한 발 앞선 정책대안을 생산하고 의견을 개진하고 있습니다. EAI 연구팀은 이론과 정책 그리고 민의가 균형있게 반영될 수 있도록 관련된 국내외 학자와 정책전문가로 구성됩니다. 또한 EAI는 한국을 대표하는 싱크탱크로서 미국을 비롯한 중국, 대만 등 해외 싱크탱크와 공동연구 및 인적 교류를 강화함으로써 동아시아 지식네트워크의 허브 기능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EAI는 연구활동의 성과를 단행본, 영문저널 *Journal of East Asian Studies* (SSCI 등재지), 워킹페이퍼, 이슈브리핑 등의 보고서를 통해 발표하고 미디어를 통한 지식의 확산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제회의와 포럼 그리고 세미나를 개최함으로써 각 분야의 학자와 전문가들 간 토론의 장을 마련하여 보다 실효성 있는 전략과 정책 대안을 도출하기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EAI 외교안보대전략시리즈

1. 21세기 한국외교 대전략: 그물망국가 건설
2. 한미동맹의 비전과 과제
3. 북핵위기와 한반도 평화
4. 2020 중국 리스크: 중국경제 중장기예측과 리스크분석
5. 변환시대의 한미 안보협력: 미래를 향한 지휘관계 재건축
6. 동아시아 공동체: 신화와 현실
7. 21세기 신동맹: 냉전에서 복합으로
8. 북한 2032: 선진화로 가는 공진전략

EAI 민주대전략시리즈

1. 대통령의 성공조건 I: 역할·권한·책임
2. 대통령의 성공조건 II: 회고와 제언
3. 정치개혁의 성공조건: 권력투쟁에서 정책경쟁으로
4. 정치개혁과 국회개혁: 현장에서의 회고와 전망
5. 국회의 성공조건: 윤리와 정책
6. 경제를 살리는 민주주의
7. 분권헌법: 선진화로 가는 길
8. 대통령직 인수의 성공조건: 67일이 5년을 결정한다
9. 보수정치는 어떻게 살아남았나?: 영국 보수당의 역사
10. 세계화 제2막: 한국형 세계화의 새 구상 (근간)

EAI 여론분석시리즈

1. 노무현 정부의 딜레마와 선택: 국민여론·소수정부·정책선택
2. 한국인의 국가정체성과 한국정치
3. 변화하는 한국유권자: 패널조사를 통해 본 5·31 지방선거
4. 변화하는 한국유권자 2: 패널조사를 통해 본 2007 대선
5. 변화하는 한국유권자 3: 패널조사를 통해 본 18대 국회의원선거
6. 변화하는 한국유권자 4: 패널조사를 통해 본 2010 지방선거 (근간)

EAI 영문서적

1. *Between Compliance and Conflict: East Asia, Latin America, and the “New” Pax Americana*
2. *Power and Security in Northeast Asia: Shifting Strategies*
3. *Party Politics in East Asia: Citizens, Elections, and Democratic Development*
4. *Collective Violence in Indonesia*

EAI 영문저널

Journal of East Asian Studies (SSCI 등재지) 2001-

EAI에서 발간하는 각종 보고서는 EAI 홈페이지(www.eai.or.kr)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